

## 핵심을 짜르는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21:17).

:

지금 베드로는 아무것도 장담하지 못합니다마 26:33-35. 자연적 개별성(타고 난 개인의 특이성)으로는 호언장담합니다. 그러나 인격성(인간의 근본적 속성)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뼈아픈 질문에 의해 발견됩니다. 베드로는 일반인들이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기질적인 사랑으로써 개별성까지 깊게 닿을 수는 있지만 인격의 중심부까지는 닿지 못합니다. 참된 사랑은 결코 큰소리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지 말고 모든 행위로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간교함에 대해 아파한 적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가 주는 그 어떤 아픔보다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오히려 죄는 감각을 무디게 하기 때문에 점점 아픔이 줄어듭니다. 주님의 질문은 우리의 감정을 더욱 예민하게 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양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인격적 차원까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 말씀은 심지어 혼과 영을 절려 쪼개기까지 하므로 거짓이란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질문을 감상적으로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그 아픔이 너무나 커서 당신은 멋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고통이 임하는 것은 결코 실수나 우연일 수 없습니다. 아픔의 그 순간이 사실은 위대한 계시의 순간입니다.

## 핵심을 찌르는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21:17)

### 1. 피상적인 사랑 고백

이전에도 몇 번 언급했는데, 꾸준히 챔버스의 글을 묵상했던 사람들이라면 눈치를 쳤을 것 같습니다. 챔버스가 말씀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두 개의 단어 혹은 상반된 개념들을 대비시키며 진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음을 통해 참된 고백이 무엇인지를 비교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주님의 물음에 대하여 ‘호언장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챔버스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인간적 특성’(natural individuality)에 기인했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훌륭한 사람을 보고 존경하는 차원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연적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natural individuality’라는 말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50번 이상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개념이 있는데 ‘영적 인격’(personality)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본래적 인간의 특성이 아닌, 영적인 단계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개념의 차이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제자도]에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떠나서는 와 닿지 않는다. 예수님을 시대를 초월한 영웅으로 보는 데 있어서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런 통찰력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거듭남을 경험할 때 주어진다.” p. 27-28

영적 통찰력이란 무엇일까요? 자연적 인격이 영적 인격이 되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송곳 같은 질문으로 베드로의 폐부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는 그렇게 쉽게, 피상적으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결코 큰소리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지 말고 모든 행위로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말로 고백하는 즉흥적인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모두에게 증명되어야 하는 그런 무게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할 때는, 그 고백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함께 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은 우리의 삶에 따라 참과 거짓이 명백히 밝혀지는 것입니다.

### 2. 아프니까 복음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심령 깊은 곳에 물음을 던지실 때, 베드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과 마주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마주서고 보니 쉽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쉽게 고백했던 그의 삶에서 수없이 무너졌던 과거가 생각났기 때문이죠. 너무 죄송하고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주님의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하

지만, 그 질문에서 우리는 나의 아픔보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과거의 우리 모습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아주 아프게 합니다. 죄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보다 더 지독한 아픔을 가져다줍니다. 죄가 우리들에게 주는 아픔은 점점 강도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의 심령을 점점 무디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의 질문은 영적으로 우리를 아주 예민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물음 앞에 진지하게 서는 사람들은, 아주 작은 주님의 신음에도 우리의 심령을 깊이 찌르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챔버스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양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가장 깊은 인격적 차원까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 말씀은 심지어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므로 거짓이란 있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 창의 끝이 우리의 폐부를 찌르듯이 깊이 파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 창이 파고 들어올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아픔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아프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이 왜 우리를 아프게 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순간에, 주님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챔버스는 이 아픔의 순간을 ‘위대한 계시의 순간’이라고까지 말합니다.

###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 ❶ 진정한 사랑은 큰소리치는 ‘선언’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 ‘고백’되는 것입니다.
- ❷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기 위해 날카로운 질문을 하실 때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때는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입니다.

**묵상 질문**      오늘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마음이 아픈가요? 아니면 아무런 느낌도 없나요?

### 묵상레시피 | 사무엘상 24:1-15 + 요한복음 21:17

사울 왕은 왜 엔게디 광야에 왔습니까? (1-2절)

다윗은 왜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잘랐습니까? (3-4, 10절)

다윗은 곧 무엇을 느꼈습니까? (5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늘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6, 15절)

다윗에게 명분과 합리적 타당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0-13절)

### 택한 사람 삼천 명(2절)

엔게디의 굴은 험한 자연 요새였지만, 물이 풍부해 은신처로 적당한 곳이었다.

사울은 이곳에 숨은 다윗 무리를 잡기 위해 상비군을 꾸렸다. 다윗 무리와 비교해 볼 때 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다윗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사울의 결심을 엿볼 수 있다.

####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4절)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로 들어갔다(3절). 용변은 진 밖에서 보아야 했으며(신23:12), 마침 들어간 동굴에 다윗이 있었다. 모압 왕 에글론의 예를 보아도(삿3:24), 다윗은 사울을 처리할 명분과 합리적 요건을 찾을 수 있었다.

#### 다윗이 마음이 찔려(5절) (히)와야크 레브-다빗 오토

문자적으로 ‘다윗의 마음이 자신을 쳤다’는 의미가 있다. 후회했다, 참회했다, 죄송스럽게 생각했다는 말. 다윗은 뉘우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땅한 도리를 지켰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내 아버지(11절)’라 부른다. 왕과 신하, 혈연관계 (장인-사위)의 밀접한 존경심을 표한 것이다. 다윗은 모든 판단과 신원을 하나님께 맡긴다(15절).

#### 짧은 기도

내 생명의 하나님께서, 저는 항상 제 몸을 정결하게 하옵니다.

아버지의 살아 계신 손이 제 몸 구석구석에 닿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제 마음에서 모든 거짓을 멀리하옵니다.

아버지의 진리가 제 마음속에 이성의 불을 밝힘을 아는 까닭입니다.

저는 항상 저의 가슴에서 모든 악을 내쫓고 사랑을 꽂피게 하옵니다.

아버지께서 제 가슴 깊은 성전에 자리하셨음을 아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제가 할 바는 하나님을 저의 손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에게 일할 힘을 베푸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라빈드라나드 타고르\_내 생명의 하나님께 (1861–1941, 인도의 사상가, 시인, 종교인)

「사귐의 기도를 위한 기도선집」 189